|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6월 모의고사 제5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제5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④	2	18	②	3	35	④	2	35	③	2
2	④	2	19	③	2	36	④	2	36	①	3
3	⑤	2	20	⑤	2	37	⑤	2	37	③	2
4	⑤	3	21	⑤	3	38	①	2	38	②	2
5	④	2	22	①	2	39	①	3	39	⑤	2
6	①	2	23	②	2	40	④	2	40	④	2
7	②	2	24	③	2	41	④	2	41	④	3
8	③	3	25	④	3	42	⑤	2	42	④	2
9	⑤	2	26	②	2	43	①	2	43	①	2
10	②	2	27	①	2	44	④	3	44	①	2
11	③	2	28	⑤	2	45	③	2	45	②	2
12	④	3	29	③	2						
13	②	2	30	③	3						
14	⑤	2	31	③	2						
15	①	2	32	④	2						
16	①	2	33	①	2						
17	④	2	34	⑤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제5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4]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거창가」 (수능특강 56쪽)**

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임장에게 '욕'을 당한 후 자결한 부인네의 사건과 관련해, 지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잘못을 저지른 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녀정문'을 세워 죽은 여인의 정절을 기리는 조치는 고사하고, 안채에 난입하여 여인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한 임장에 대한 처형('대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합당한 벌이 내려졌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우거 양반 김일광이 선무포가 가당한 말가'라고 하여, 선무군관에 임명된 상민에게만 부과되는 군포인 '선무포'를 선무군관이 아닌 김일광에게 걷으려 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탐관오리의 학정을 고발하는 이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과도한 군포 징수의 폐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고을 임장 포 거둘 제/양반 안채 난입하여'라고 하여, 군포를 걷겠다고 양반의 집 안채에까지 함부로 들어가는 무례한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작품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당시 임장 등의 구실아치(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들이 자행한 폭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⑤장살(형벌로 매를 쳐서 죽임)당한 '한유택 정치광과 전대부 강일상', 곤장을 맞은 후 한 달이나 보름 만에 죽은 '오륙 인'의 일을 말하면서 '남살 인명'의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온갖 '학정'과 '남살 인명'으로 숱한 백성을 죽게 한 거창 수령 이재가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고을 수령으로서 위세 등등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시구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혼령이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은 태양이 빛을 잃고 청산이 무너지려 한다는 말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느끼는 비애를 자연의 무심함과 대조하는 것이 아니다. ②㉡은 음력 사월에 우박이 내린다는 흔히 보기 힘든 자연 현상에 대해, 그것이 죽은 여인의 원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다. 대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드러내려는 말이 아니다. ③㉢은 물음의 방식을 통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매를 맞고 죽은 인물들의 일에 대해 분함을 토로하고 있다. ⑤㉤은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원통타 우는 소리'와 조응하는 자연물들의 스산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신념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하다.

3.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죽은 여인이 임장에게 말할 법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화자가 죽은 여인의 심정을 상상하여 그가 느꼈을 억울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인과 임장이 말을 주고받는 상황을 담고 있지는 않다. [B]에는 원혼들의 상소에 대한 염라대왕의 대답이 나타나 있으나, 원혼들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므로 인물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③[B]에서는 염라대왕의 응답을 상상하여 진술한 것을 통해 탐관오리의 악행이 처벌받기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B]에서는 '조고'와 '진회'라는 간신들이 '철산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거창 수령인 '재가' 또한 '철산옥'에 갇힐 '탐관오리'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통타 우는 소리 재가 신명 온전할까'라는 말은, 원혼들의 한이 이렇게 깊은데 고을 수령 이재가의 몸과 목숨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포악한 수령이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기 바라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통치 체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광언 패설'과 '두발부예'를 당한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동에 대해, 화자는 그 여인이 '정절'을 '능멸'당했다는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장하다 저 부인네'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정절이라는 유교적 윤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런 흉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는 말로 임장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5 ~ 10]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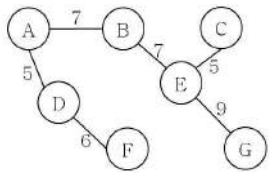
5.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래프에서는 모든 정점을 포함하면서 간선의 수가 가장 적은 트리인 신장 트리를 도출할 수 있다. 신장 트리도 여러 형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최소 신장 트리는 이들 중 가중치의 합이 최소인 것이다. 따라서 가중치가 바뀌면 최소 신장 트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컴퓨터는 현실의 상황을 자료 구조의 형태로 저장하여 활용하는데, 정점들과 간선들로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를 그래프라 한다. ②'여러 방법들 중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을 통해 최소 신장 트리를 도출하는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③간선의 가중치가 모두 다른 것일 때 최소 신장 트리는 하나만 도출된다. ⑤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래프에서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부터 순차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그림>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최소 신장 트리를 도출하면 이와 같다.



이는 <그림>의 모든 정점을 포괄하면서 간선이 6개인 최소 신장 트리이다.

[오답풀이] ②최소 신장 트리에서 간선 BE 대신에 간선 BC를 선택하면 또 다른 형태의 신장 트리가 된다. 즉 신장 트리가 여러 형태로 도출되는 그래프이다. ③정점 A를 포함하는 사이클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A-B-D-A, A-B-E-D-A, A-B-C-E-D-A 등이 모두 정점 A를 포함하는 사이클이다. ④5+5+6+7+7+9=39이다. ⑤트리는 두 정점 간에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는 그래프이다.

7. [출제의도] 지문을 토대로 한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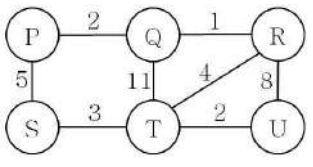
[보기설명] 정점과 간선에 관하여 최소 신장 트리가 지닌 어떤 특징이 있다면 이를 알고리즘의 종료 신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답풀이] 지문의 셋째 문단에 따르면 신장 트리를 구성하는 간선의 개수는 항상 정점의 개수보다 1만큼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알고리즘을 택하든 가중치의 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최소 신장 트리의 요건을 충족해 가는 방법일 것인 만큼, 정점의 개수보다 선택된 간선의 개수가 하나 작은 시점인, 신장 트리가 완성되는 시점을 알고리즘의 종료 신호로 활용하면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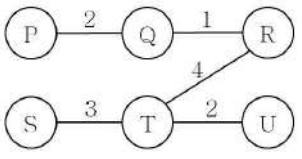
[오답풀이] ①정점의 개수와 선택된 간선의 개수가 같은 그래프에는 사이클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③남아 있는 간선들이 각기 사이클을 만드는지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방법이다. ④간선의 가중치는 알고리즘의 종료 신호로 사용될 수 없다. 무엇을 가중치로 부여하느냐에 따라 간선들의 가중치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⑤특정 간선을 선택했을 때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간선을 선택하지 않고 그다음 간선의 선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알고리즘의 종료 신호로 삼을 수는 없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마을의 통신망을 나타낸 그래프를 토대로 최소 신장 트리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프가 행렬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림 형태로 바꾸어 판단하는 것이 좋다.



[정답풀이] 그래프에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으로 최소 신장 트리를 얻으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 QR이 가장 먼저 선택될 것이고, 간선 PQ와 간선 TU가 순차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어 간선 ST가 선택되고, 간선 RT까지 선택되면 모든 정점들이 하나의 트리에 포함되는 상태가 되어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즉 간선 PS는 아예 선택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주택 U는 주택 T, S, P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주택 Q와 통신할 수 있다. 즉 주택 S를 경유하는 경로가 존재한다. ②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통신선을 유지하려면 모든 가중치들을 합한 값, 즉 총 36만큼이 소요된다.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면 간선 PS, 간선 QT, 간선 RU가 없어진다. 즉 5+11+8=24만큼 유지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가 절감될 것이다. ④최소 신장 트리를 얻었을 때 남아 있는 간선 중 가중치가 가장 큰 것은 간선 RT이고 그 값은 4이다. 따라서 주택 P, Q, R로 구성된 작은 마을과 주택 S, T, U로 구성된 작은 마을로 분할될 것이다. 주택 S, T, U로 구성된 작은 마을은 간선 ST와 간선 TU의 가중치에 간선 RT의 가중치의 절반만큼을 더한 유지비를 부담할 것이다. 즉 3+2+2=7만큼 부담한다. ⑤최소 신장 트리에서 주택 S가 주택 P와 통신할 수 있는 경로는 주택 T, R, Q를 순차적으로 경유하는 경로 단 하나만 존재한다.

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에 가중치가 큰 간선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한다. 그런데 제거했을 때에 그래프를 두 덩어리로 조각나도록 하는 간선은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래서 어떤 간선을 제거했을 때 그 간선의 가중치보다 더 큰 값의 가중치를 지닌 간선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제거할 때 그래프가 두 개로 조각나는 간선들만 남아 있으면 더 이상 제거할 간선이 없으므로 종료되어야 한다. ②그래프에서 간선을 제거하면 사이클이 하나 이상 사라진다. 변형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사이클을 없애 가는 방법이다. ③제거 가능하면서 가중치가 같은 간선 두 개가 있을 때에는 무엇을 먼저 선택하여 제거해도 최소 신장 트리를 얻을 수 있다. ④가중치가 같은 간선들이 여럿 있을 때에는 하나의 그래프에서 형태가 다른 최소 신장 트리가 하나 이상 도출될 수 있다. 그래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따라 한 번 도출해 본 것과 다른 형태의 최소 신장 트리가 도출될 수도 있다.

1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깝게 쓰인 단어를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두는(두다)'은 문맥을 고려할 때 '어떤 대상을 일정한 상태로 있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쪽 벽은 칠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에서 쓰인 '두다'와 의미가 유사하다.

[11～15] 현대시－수필

➔ **연계 지문 : 박용철, 「떠나가는 배」(수능특강 80쪽)**

➔ **복효근, 「얼음 연못」 | 김진섭, 「백설부」**

1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눈물로야 보낼 거냐', '손쉽게야 버릴 거냐', '무어 다를 거냐', '마련이나 있을 거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설의적 표현들이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수미상관의 기법은 (가)에서만 활용되었다. ②(가), (나) 모두에서 대상에 대한 회의감(=의심이 드는 느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나)에서는 대상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는 감정 표현의 시어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가)에서는 과거형 시제가 사용되지 않았다.

1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에서, '돌아다보는' 행동의 주체는 화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항구를 떠나는 배 위에 있는 화자가 고향 쪽을 돌아보는 것으로도, 혹은 반대로 고향 쪽을 바라보던 화자가 시선을 돌려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이건 '바람이 희살 짓는다'라는 표현은 이러한 화자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환기하거나, 아니면 화자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돌아다보는 구름' 자체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바람이 희살 짓는다'를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다.

[오답풀이] ①'나 두 야'에서 음절 단위로 띄어 쓴 '두(도)'와 '야'는 각각 더함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화자인 '나'의 상황이 당대 청년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음을 부각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②'눈물로야 보낼 거냐'는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손쉽게야 버릴 거냐'는 고향을 떠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두 시구를 통해, 고향을 떠나는 화자의 복잡한 심경이 섬세하게 드러난다. ⑤'앞 대일 언덕'은 앞으로의 행로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조건을 표상하는 것으로, 그것이 없음에도 화자가 '나 두 야 간다'라고 한 것은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도 탈향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특정 시구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이 작품은 상처를 받은 기억을 내면에 품고 사는 삶에 대한 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돌'은 상처를 준 고통스럽거나 충격적인 경험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연결해 보면 '거미줄 같은 균열들'은 '돌', 즉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생긴 내면의 상처나 흔들림을 뜻하고, '균열들'이 '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운 기억이 쉽게 잊히지 않고 자꾸 떠오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돌'을 소중한 추억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시의 '얼음 연못'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더러 뚫고 지나가지 못한 돌들'은 '얼음'에 박혀 있는 '돌'로서, 망각되지 않은 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픈 기억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③시적 맥락 속에서 '상처가 상처끼리 연대'하는 상황은, '돌'을 둘러싼 '거미줄 같은 균열들'이 '뿌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스크럼을 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연못'이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 관련하여 본다면, 이는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된 고통들을 통해 오히려 마음이 점차 굳건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⑤'돌'이 '얼음의 뼈'가 된다는 것은, ㉠과 연관하여 본다면, 아픈 기억이 오히려 마음을 더욱 굳건하고 성숙하게 만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에서 본다면 '큰 돌이 넉넉하게 박힌 얼음'은,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은 뒤 더욱 성숙해진 내면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시와 수필의 특정 부분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연못'이 '더 많은 바람과 그늘을 불러모'아 '얼음을 덧입'었다고 한 것은, 추위가 심해짐에 따라 얼음이 두껍게 어는 상황을 두고 '연못'을 능동적인 행동의 주체로 상정하여 표현한 것이다. [B]에서는 '천하가 얼어붙'은 '겨울날'을 '찬 돌과 같이 딱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들한들 춤추며 내려오는' '눈'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대비됨으로써 눈의 아름다움을 부각한다.

[오답풀이] ③[B]에서 글쓴이는 '비'가 '겨울이 되면 얼어서 눈으로 화'하는 것을 '고마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비'가 나약한 대상을 나타낸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④[A]의 '얼음'은 '돌'에 의해 시련을 당하는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시련을 주는 존재로 나타나 있지 않다.

15.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명의 구각을 탈'했다고 표현하거나, '원시 시대의 풍속으로 탈환한 상태'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면, 글쓴이는 눈이 내린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인간 문명 이전의 상태를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곳적부터 이어져 온 인간 문명의 위대함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만일에 이 삭연한 삼동이 불행히도 백설을 가질 수 없다면, 우리의 적은 위안은 더욱이나 그 양을 줄이고야 말 것'이라고 한 것과, '백설 애애한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최후의 단안을 내린' 상황에서도 '적설을 조망하'며 '생의 고요한 유열과 가슴의 가벼운 경악을' '맛볼' 수 있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소리 없이 온 눈이 소리 없이 가 버리지 않고' '하늘이 내리어 주신 선물인 것과 같이 순결하고 반가운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 준다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모든 아름다운 것은 슬픈 일이나 얼마나 단명하며, 또 얼마나 없어지기 쉬운가!'라고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21]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9쪽**

16.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전통적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들 중 결과주의를 견지하려는 철학자들의 비판이 소개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결과주의 자체에 대한 비판이 소개되고 있다.

[오답풀이] ②(가)와 (나) 어디에서도 상반된 두 입장의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③결과주의에 대한 윌리엄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④(가)에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상반된 입장들이 비교되고 있다. ⑤(가)와 (나)는 모두 결과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문적 의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17.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규칙 수용에 따른 결과가 객관적으로 좋은 것인지의 여부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진다.

[오답풀이] ①전통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여긴다. ②모든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규칙 수용에 따른 결과에 관심을 갖는 규칙 공리주의와 달리, 전통적 공리주의는 구체적 행위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다. ③ 전통적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인 '행복'의 정도가 계산되어야 '행위의 옳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규칙 공리주의는 지문에 소개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구체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이익 계산이 우리의 직관과 충돌하는 결론을 낳는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입장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전통적 공리주의는 감각적 쾌락을 좋은 결과로 간주하지만 선호 공리주의는 선호 만족을 좋은 결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는 ⓐ만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다. ㄷ. 전통적 공리주의는 쾌락이 있는 사태를 좋은 것으로 보지만 선호 공리주의는 욕구 만족이 있는 사태를 좋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는 ⓑ만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다. ㄹ. 전통적 공리주의는 가상의 성취에 동반하는 쾌락도 좋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지만, 선호 공리주의는 이를 부정한다. 따라서 전통적 공리주의는 가상의 성취가 행복 즉 쾌락을 가져다준다면 이를 낳는 행위는 옳은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여기지만 선호 공리주의는 이를 부정한다. 따라서 이는 ⓐ만 동의할 수 있는 진술이다.

[오답풀이] ㄴ. 전통적 공리주의와 선호 공리주의는 모두 행위의 옳음이 행위 결과의 좋음에 의존한다는 결과주의에 속한다. 좋고 나쁨이 옳은 것인지에 의존한다는 진술은 ⓐ, ⓑ 모두 동의하지 않는 진술이다.

19.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입장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통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또 다른 공리주의인 선호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도 결과주의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 결과주의란 행위의 옳음이 행위 결과인 어떤 사태의 좋음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입장이다. ② 결과주의에 뿌리를 둔 전통적 공리주의에 따르면 '고통의 부재'는 행위의 좋은 결과에 해당한다. 전통적 공리주의 역시 결과주의에 속한다. ④ 윌리엄스에 따르면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자가 막지 못한 일도 행위 결과로 간주하여 그것의 좋음에 대한 평가에 따라 행위의 옳음 여부를 판단한다. ⑤ 결과주의에 따르면 행위 결과 또는 규칙 수용의 결과가 좋으면 행위가 옳은 것이다. 따라서 행위 결과 또는 규칙 수용의 결과가 행위의 옳음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

20.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주장의 이유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갑이 자신의 인격을 구성하는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사람들의 기획을 입력으로 두고, 결과를 계산하는 기계적 존재일 뿐이라는 내용이다. 행위 공리주의를 따를 때 갑은 인과적 만족 체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이의 삶의 기획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같다. 즉 갑의 선택에는 갑 자신의 삶의 기획뿐만 아니라 을의 삶의 기획도 개입한다. 갑이 행위 공리주의를 따라 판단할 경우에 이러한 개입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행위 공리주의는 갑에게 '도덕적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② 행위 공리주의에 따른 갑의 판단이 자신의 삶의 기획과 을의 삶의 기획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갑의 삶의 기획과 을의 삶의 기획이 갑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③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자의 중개를 통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결과를 행위의 옳음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④ 행위 공리주의에 따라 갑이 일자리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확장된 책임'에 의한 행위로서 자신이 일자리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을이 행하게 될 일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위이다.

21.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지문에서 소개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이다. X가 Z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19명이 살아남지만, X가 Z의 제안을 거부하면 20명이 모두 죽는 상황에서 X가 Z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해야 한다.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X는 Z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의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하지만 윌리엄스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 공리주의적 결론은 X에게 X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정답풀이] 윌리엄스에 따르면 규칙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규칙 수용의 결과를 고려하므로 개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신념이나 삶의 기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X가 규칙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평화를 중시하는 자신의 신념을 고려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은 진술이다. 또한 X가 평화를 중시하는 자신의 신념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X가 의무주의적 신념이 최상의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사태이므로, 전자의 고려가 공리주의를 버리고 의무주의적 신념을 가질 것을 권하는 것이라는 진술도 옳지 않은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X가 Z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19명이 살아남는 결과를 낳고 X가 Z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20명이 모두 죽는 결과를 낳는다. 전자의 결과가 후자의 결과보다 더 큰 이익을 갖는 사태이므로,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X는 Z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② '힘없는 타민족을 불가피하게 학살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모든 사람들이 수용하는 것의 결과는 재앙이므로,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이다. 따라서 X는 Z의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 ③ 윌리엄스에 따르면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 인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를 고려하므로 그 결과들이 누구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났는가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행위 공리주의는 소수 민족을 직접적으로 사살하는 자가 누구인지에는 도덕적 의미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④ 윌리엄스에 따르면 행위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확장된 책임'을 갖도록 한다.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X가 Z의 제안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가 Y에 의한 사살을 막지 못한 셈이므로 이 일에 대해서도 X에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을 낳는다.

[22 ~ 26]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5쪽, 149쪽

22.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계약 해제권의 행사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를 인정하면 매매 계약의 조속한 확정이 저해된다.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길수록 매매 계약의 조속한 확정이 저해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위조품의 매매 상황 중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위조품을 판매한 상황일 때는, 매도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고 매도인은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③ 사기죄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위조품을 판매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매도인이 모르고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상황이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아닐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미술품 거래의 착오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별할 때는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이 고려된다. 따라서 미술품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위라면 그 직업을 고려하여 과실 여부가 판별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지문의 두 법률 조항에 대해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민법 제580조)과 ㉡(민법 제109조)은 법률 제정 취지와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적용되는 경우도 다르다. ㉠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 즉 위조 여부 혹은 가격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 적용될 수 없는 계약 사안이지만 ㉡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가격에 착오가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적용될 수 없지만 ㉡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풀이] ① ㉠은 법률 행위 중에서 매매 계약에만 국한시켜 적용되는 조항이다. 즉, 계약 이외의 법률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단, ㉡은 유언 등 다른 법률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③ ㉡은 착오 없이 법률 행위를 한 표의자가 아니라 착오에 의해 법률 행위를 한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은 하자에 관한 조항이므로 착오 없이 법률 행위를 한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④ 경합설은 ㉠과 ㉡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일 뿐, 어느 한 조항을 적용하면 다른 조항을 적용한 효과까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다. 넷째 문단에 따르면, ㉠과 ㉡은 법률 제정 취지, 성립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다르다. ⑤ 배제설은 매매 계약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이다. 이때 ㉡은 계약 해제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배제된다. 만약 계약 해제권의 행사 기간이 지난 후에 ㉡을 적용하게 되면 매매 계약의 조속한 확정을 중시하는 배제설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24.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의자의 의사 표시가 취소되지 않으면 착오는 상대방이 아닌 표의자에게 피해를 입힌다. 착오는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게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착오가 발생할 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는 표의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인 경우이다. ②, ④ 민법상의 '착오'는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의 진의와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와 관련한 의사 표시를 할 때 나타난다. ⑤ 여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관에 착오와 관련하여 고객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으면 해당 약관은 약관 규제법에 근거하여 무효로 처리된다.

25.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갑과 을은 P가 진품이라고 믿고 계약했으므로 매매 당사자가 모두 위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상황이다. 감정 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으므로 민법 제580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며, 표의자인 갑이 진품이라고 믿는 착오를 했으므로 민법 제109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갑의 '해제'와 '취소'는 법원이 배제설과 경합설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또한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계약 해제권과 취소권은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 인지 후 6개월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배제설과 달리 경합설을 취해야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2심 법원)에서 갑의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아 ㉰는 경합설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합설을 취하면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갑의 해제권 행사는 하자 인지 시점인 2018년 5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갑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은 2020년 3월이다. ㉰에서 경합설을 취하더라도 갑의 해제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법원은 그 이유로 갑의 '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1심 법원)는 배제설을 취하여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과 을의 계약 사안은 위작임이 판명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안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에서 갑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갑의 '해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배제설을 취하여 착오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매매 계약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갑과 을의 계약에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따라서 법률 행위에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에서 갑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을 리 없다. ③ 약관에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관은 약관 규제법의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로 처리된다. 즉 약관에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갑의 '취소'는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의 약정 때문에 갑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될 리는 없다. ⑤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합설을 취했다면 해당 사안에서 하자 담보 책임의 발생과 착오의 발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26.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지문의 표현을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맥상 '의사 표시를 한 날'은 법률 행위와 관련된 의사 표시를 한 날을 뜻한다. 따라서 ⓑ를 '착오가 있음을 상대방에게 알린 날로부터'로 바꿔 쓸 수 없다.

[오답풀이] ①'해제권을 행사'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과 대금을 반환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따라서 ⓐ는 '매매 계약을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로 바꿀 수 있다. ③취소권은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취소권이 배제되면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④ 문맥상 '미술품이 위작임을 판명'한다는 것은 위조품을 진품으로 착오하여 매매한 것이 밝혀지는 것을 뜻한다.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다는 것은 표의자가 위조품을 보고도 위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았다는 뜻이다.

[27 ~ 30]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김유정, 「떡」 (수능특강 155쪽)**

27.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야기 속 서술자가 구술적인, 즉 말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오답풀이] ② 현학적인 표현이란 어렵고 관념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지문에서 현학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개똥 어머니의 말과 덕희의 말에 비속어가 나타나 있지만, 이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와 무관하다. ⑤ 인물에 대한 감각적 묘사는 활용되었지만, 감각적 묘사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그린 부분은 없다.

2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가 옥이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옥이의 아버지 덕희는 '나'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고 팔짱을 끼고 심각한 분위기로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봉구에게 '여보게 (옥이가) 참말 죽지는 않겠나' 하고 묻거나, '나'에게 '(옥이에게) 소금을 더 먹여 볼까' 하고 물으며 딸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덕희가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모습을 일절 내비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소금은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다. 봉구와 덕희는 옥이가 사경을 헤매는 것이 귀신에 들려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을 읽고 소금을 먹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 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저도 다른 계집 마찬가지로 마루 끝에 서서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이렇게 여러 번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었음에 틀림없을 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허둥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 보니 어머니는 딸 머리맡에서 무르팍에 눈을 비벼 가며 여지껏 훌쩍거리고 앉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그렇건만 뭘 믿는지 마을에서 병이 나거나 일이 나거나 툭하면 이놈(봉구)을 불러 대는 게 버릇이 되었다. 이까짓 놈이 점을 친다면 참이지 나는 용 뿔을 빼겠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나'는 경을 읽는 봉구에게 '사관이나 좀 틀게나'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 서슬에 봉구가 침을 꺼내어 옥이의 손에 놓자 옥이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은아씨가 처음에 배고파하는 옥이에게 국밥을 말아 주거나 그 뒤에 ⓐ를 준 것은 친절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루 팥떡')를 먹은 시점에서 옥이는 이미 음식이 '목구멍까지 꽉 찬' 상태였기 때문에, ⓑ('백설기')는 채 다 먹지도 못하고 '반쯤 남겨서는 작은아씨에게 도로 내주고 모로 고개를 돌렸'는데도, 작은아씨는 다시금 ⓒ('꿀 바른 주왁')를 옥이에게 권유한다. 어린 옥이가 잘 먹어 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에 흥미를 느끼며 계속 음식을 권유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옥이는 ⓐ에 대한 작은아씨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② 옥이는 ⓐ를 먹은 뒤 이미 배부름을 느꼈다. ⓐ를 먹은 뒤 뒤이어 나온 팥떡을 거절한 것이나, 늘어난 배에 대한 묘사에서 이를 알 수 있다. ⑤ 작은아씨가 ⓐ, ⓑ, ⓒ의 순서대로 떡을 내놓은 것은, 옥이가 더 귀한 음식의 유혹도 참을 수 있는지,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먹을 수 있는지 호기심이 일어서였을 것이다.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주왁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팥떡, 이렇게 나왔다면 옥이는 주왁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백설기, 팥떡은 단연 아니 먹었을 것이다.'라는 서술자의 말에서, ⓒ가 개중 가장 귀한 떡임을 짐작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이전까지, 서술자는 옥이가 잔칫집에서 떡을 먹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관을 노출해 가며 서술하였는데, <보기>에 따르면 이는 전해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서술자가 주관의 노출 없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에서 이야기 속 서술자인 '나'는 '중략' 전까지는 사건 현장에 없었으면서도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서술하고 묘사한다. ㉠은 그러한 서술적 특징이 나타난 대목으로, 작가는 빈곤 속에서 언제나 먹을 것에 굶주렸던 옥이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이 일제 강점기 민중의 빈곤한 삶을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에서 '굶주린 창자의 착각'이라는 것은, 옥이가 늘상 배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맛있는 떡 앞에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옥이가 과식을 한 원인이 옥이의 탐욕에 있기보다 늘상 배고픈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일제 강점기하의 부정적 현실에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그전까지 옥이와 관련된 사건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던 '나'는, ㉣에서 옥이의 집을 찾아감으로써 사건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한다. ⑤ ㉤에서 '경이니 소금이니' 하는 것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이다. 봉구와 덕희는 과식으로 인해 죽어 가는 옥이를 앞에 두고, 옥이가 귀신에 씌었다고 생각하여 엉뚱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은 이를 어이없어하는 '나'의 판단이 드러난 부분이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미신에 의존하여 잘못된 대응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보기>를 참고하면, 현실에 대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한 대응력을 상실한 민중의 무능과 무지를 냉소적으로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31～34]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유문성전」**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기가 나타나자 이 도독은 처음에 '칼을 들고' 나서서 '호령'하는 등 그를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 데 반해, 유 원수는 처음부터 유기가 '범상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인사에 공손히 답례를 하여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오답풀이] ①이 도독과 유 원수는 유기가 찾아오기 전에 꿈속 일광 도사의 가르침으로 누군가가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유기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유기를 만나기 전, 유 원수와 이 도독은 모두 일광 도사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유 원수가 이 도독의 꿈 이야기를 듣고는 '내 역시 몽사 그러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이 도독은 유 장군(유 원수)과 자신이 오랜 벗이라는 유기의 말을 들은 뒤에도 '더욱 노하여' 유기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유기를 홀대한 것에 대해 사과한 사람은 이 도독 자신이지 유 원수가 아니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유기가 처음에 이 도독을 유 원수로 알았다가 직접 유 원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착각하였음을 깨닫고 당황하여 유 원수에게 예를 표하는 모습이다. 남장을 한 이 도독을 유 원수로 착각한 것은 유기 자신의 실수일 뿐이지 유 원수가 지략을 발휘하여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 지금 '자객'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세객'으로 변하리라고 예언하는 내용이다. 이후 '자객'의 임무를 수행하러 온 유기가 결국 주 원수와의 연대를 권유하는 '세객'이 되는 서사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부정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②㉡은 '세객으로 칭탁(=사정이 어떠하다고 핑계를 댐.)하'는 자가 왜 '밝은 낮을 버리고 밤을 쫓아 왔'느냐고 추궁하는 말이다. 세객이라면 밝은 낮에 올 것인데 밤에 자신을 찾아왔으니, 상대의 행동이 말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③㉢은 '진세', 즉 속된 인간 세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말로, 상대가 인간 세상을 초월한 비범한 풍모를 지녔다며 칭찬하는 말이다. ⑤㉤은 상대가 '주 원수와 더불어 동심동모'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래 품고 온 뜻을 행하려 했다는 말이다. 유기는 원래 자객으로 왔으므로, 이는 곧 상대방을 해칠 뜻도 있었음을 고백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서사적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유기가 처음 이 도독을 접하고 그의 모습에 감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A]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유기의 발화에는 자신이 '유 장군과 평생 좋아하는 벗'이며 적에게 잡혀갔다가 도망해 왔다는 거짓된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어지는 인물의 발화가 진실인 것도, [A]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②'기상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는 듯', '눈은 샛별 같고 눈썹은 팔각산을 그린 듯' 등 과장된 비유를 나열하여 이 도독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③'처음 보매 반갑고, 두 번 보매 두렵고, 세 번 보매 탐탐하'여 '해할 마음이' 사라지고 '감동하'게 되었다는 서술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감정이 달라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자연 감동하여 허리를 굽히고 길게 읍하'는 모습은 한 인물(유기)이 다른 인물(이 도독)에게 감복하여 취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⑤[A]에서는 이 도독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관찰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오로지 유기라는 한 인물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망령되이 세상에 분주하'다는 것은 유기 자신이 그러했다는 말이지 유문성에게 하는 조언이 아니다. 유기는 주 원수가 자신을 '삼고초려'하자 주 원수를 따라 '망령되이 세상에 분주'했는데, 이제 전장에서 유문성을 보니 그 '병법'이 과거의 이름난 병법가인 손무와 오기를 능가한다고 하며 유문성이 주 원수와 '동심동모', 즉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을 꾀하기를 청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천의를 거역지 말라'라는 말은 하늘의 뜻이 따로 있으니 따라야만 한다는 말이고, '천상의 각성이 지상에 적거하였도다.'라는 말은 유기가 유문성을 보고 하늘의 별이 인간 세상에 적강한 존재라며 경탄하는 말이다. 이는 모두 지상계의 일을 천상계와 연결 지어 생각하는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③유문성이 유기를 맞아 '천수(=하늘이 정한 운명)를 일러' 주어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유기는 자신의 주군인 주 원수와 '동심동모'할 것을 청하고 있다. 이는 두 진영이 대립을 그만두고 연대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④유기가 '천하 분분'한 시국에 '간신이 반역'하여 '생민이 도탄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공동의 적을 쳐야 할 명분을 유문성에게 제시하여 연대를 꾀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01쪽**

35. [출제의도] 발표에 관한 설명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리 지역의 박물관을 방문하여 '대동여지도 특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사용된 시각 자료의 활용에 대해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대동여지도의 한 면'으로, '실제 거리 10리마다 점을 찍었'다는 점을 알려 주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점의 간격을 보고 '실제로 이동해야 할 거리가 얼마인지 예측'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자 3'은 '대동여지도는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했다는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라며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지만 '청자 2'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청자 1'은 발표를 통해 '대동여지도가 사용자의 편리성까지 고려한 지도라는 것을 몰랐는데 알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청자 2'는 발표에서 '대동여지도에 사용된 기호들이 각각 어떤 장소 정보를 나타낸 것인지'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③'청자 3'은 '청구도의 맨 앞에 실렸다는 색인은～사용된 걸까?'라고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다. ④'청자 1'은 '청구도는～볼 수 없는 경우도 있었겠구나.'라고, '청자 2'는 '청구도에 비해～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었겠군'이라고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38～41] 화법－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0쪽**

38. [출제의도] 토론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입론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보유세를 도입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반대 1'은 입론에서 '또한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이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입론에서, '최근 반려동물 양육～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논제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찬성 1'은 입론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유기 동물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반대 1'은 입론에서, '그런데 반려동물 보유세까지～반발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여 찬성 측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의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④'반대 1'은 반론에서, '유기 동물의 발생으로～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찬성 측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거론하며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⑤'찬성 1'은 반론에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반발을～부담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라고 하여 반대 측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지만,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 반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토론 반대 신문 과정에서의 전략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반대 1'은, '찬성 1'이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강제성 없는 방식이 효과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물론 당장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겠지만'이라고 일부 동의하였다. 하지만 '보유세의 납부보다 교육을～더 효과적일 것입니다'라고 하여 '찬성 1'과 의견을 달리하는 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1. [출제의도] 학생의 글쓰기 계획이 글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학생은 토론 논제와 관련해 찾아본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지만 그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42～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21쪽

42.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두 글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문 목적을 고려할 때 (나)는 개인의 경험과 반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 설정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여 다짐을 드러내고 있지만 (가)에는 개인의 다짐이 드러나 있지 않다.

43. [출제의도]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 글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데이터 센터에서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는 설명이 있지만 그 외에 환경 오염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하는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산화 탄소가 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정보를 이용하여 [B]에서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의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가 불러온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준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컴퓨터 서버, 저장소, 네트워크 장치 등' ⓐ의 종류를 찾아 [A]에 제시하였다. ② ⓑ의 수치를 활용하여 냉각 장비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전자 장치가 소모하는 전력량의 최대 3배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③ ⓒ의 자원을 '화석 연료'로 통칭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원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원인임을 제시하였다. ⑤ ⓔ에 제시된 방안을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5. [출제의도] 점검을 통해 마지막 문단을 적절히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첫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두 문장으로 나누어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마지막 문장에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39] 언어

35. [출제의도] 형태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쪽

자립 형태소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있다. 이들은 모두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자립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어떤 실질 형태소는 자립 형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의존 형태소 중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한다(㉠). 또한,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형태소의 기본형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4쪽

'깎았다[까깓따]'에서는 '깎-'이 [까]가 아닌 [깎]으로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깡]과 [까]는 음운 환경에 따라 [깎]의 형태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잘못되었다.

[오답풀이] ②[흙]을 기본형으로 설정할 경우, [흑]은 자음군 단순화를, [흥]은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를 적용함으로써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③주격 조사 '가'와 '이'의 교체를 설명할 만한 음운 현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둘 모두 사전에 등재되었다. ④어간의 기본형을 '지-'로 설정할 경우, '짓[짇]'을 설명할 음운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37.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바탕으로 준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6쪽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따르면 '파이어'는 '패어'나 '파여'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보이어'는 '뵈어'나 '보여'로 적을 수 있다. ④'편하지 않다'는 '하지' 뒤에 '않-'이 어울린 경우이므로 '-찮-'으로 적는다.

38. [출제의도] 부정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3쪽

'여기에는 볕이 잘 들지 않는다.'의 '들다'는 부정 부사 '안'을 사용하여 '여기에는 볕이 잘 안 든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부정 부사를 통해서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의 '안'이 '어제'를 부정할 경우, 민수와 어제 안 만나고 다른 날 만났다라는 의미가, '나는'을 부정할 경우, 어제 민수와 만난 건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부정문은 부정하는 범위에 따라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합성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44쪽

'나사가다(나아가다)'는 용언의 어간과 용언 사이에 연결 어미가 결합해 있다.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다. '오ᄅᆞ느리다(오르내리다)'는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결합해 있으므로, 이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르다.

[오답풀이] ①'감ᄉᆞᆯ다(감돌다)'와 '뛰놀다(뛰놀다)'는 모두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②'요ᅀᅴ(요사이)'는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했으므로, '앒셔다(앞서다)'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구성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③'ᄉᆞᆯ지다(살찌다)'와 '몯ᄒᆞ다(못하다)' 모두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솟나다(솟아나다)'와 '됴쿶다(좋거나 궂다)'는 모두 연결 어미 없이 용언의 어간과 용언이 결합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40～42] 매체 1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39쪽

40. [출제의도] 지문에 나타난 매체별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인쇄 매체인 (가)와 달리 경관 농업 현장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여 경관 농업에 대한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오답풀이] ①댓글을 통해 쌍방향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나)뿐이다. ②첫 기사 입력 후에 수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③(가)와 (나) 모두 표제로 핵심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⑤지문상에서 전자 우편 주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나) 역시 전자 우편 주소를 제시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활용하여 매체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관련 기사 모아 보기'에 제시된 기사들의 표제에서 경관 농업의 단점을 다룬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사는 없다. 또한 '관련 기사 모아 보기'는 유사한 내용의 기사들이 제시된 것이지, 정보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니다.

42. [출제의도] 특정 매체에 드러난 언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에서'를 활용하여 '기록'한 주체가 특정 단체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만족도'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고 있다.

[43～45] 매체 2

43. [출제의도] 제시된 매체 자료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71쪽

'지후'는 '스토리보드 양식'을 찾는 '은서'에게 '여기 교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식이 괜찮은 것 같아.'라고 말하며 인터넷 주소 'http://www.○○○○.co.kr/storyboard'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해당 매체의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자신이 찾은 이미지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후'이다. ④'희수'가 몸짓 언어의 요소가 가미된 이모티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주제를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지후'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44. [출제의도] 영상 제작 계획이 스토리보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4쪽

#1의 자막에는 캠페인의 이름('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 캠페인')과 영상의 제목('횡단보도에서')이 제시되어 있다. ㉠에서 언급된 주제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스토리보드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93쪽

'영재'는 '#4에는 우리가 조사한 위험 요인 중 한 가지만 자막으로 제시되어 있'으니 '다른 한 가지도 삽입하고 출처를 밝히자'고 제안하였다. 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4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으면 시야각이 좁아진다는 내용과 출처가 자막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정된 #4에는 기존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출처('(출처: 행정안전부)')만이 추가되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